

광주시장 후보경선 시계바늘 빨라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입후보 예정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중앙당에서 '덧발'인 광주시장 경선 시기를 전국에서 가장 빠른 내년 2~3월에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예비후보들도 '선거 시계바늘'을 앞당기고 있다.

8일 민주당 등 지역 정계에 따르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광주시장 선거 입지자들만 10여명에 달한다.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해 강운태·이용섭·조영택 의원,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 전갑길 광주 광산구청장, 양형일 전 의원,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민주당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진보신당 윤남실 시장 위원장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민노당은 다음달 15일께 시장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최근 선거 캠프·정책 자문단 구성을 마쳤거나 준비 중인 것

민주 중앙당 '조기경선' 검토에 발걸음 분주

선거캠프 가동·출판기념회 시민 접촉 늘려

로 알려지고 있고, 각종 특강과 간담회,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시민 접촉을 늘려가고 있다.

민주당 후보군 중 스타트를 가장 빨리 한 예비후보는 정동채 전 장관으로 오는 14일 오전 11시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출판기념회를 가진 양형일 전 의원은 각종 현안 부각을 통해 지지도 상승을 꾀하고 있다.

강연·등산모임 등을 통해 스낵심을 강화하고 있는 이용섭 의원은 이달 중 '중요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오는 21일 출

판기념회를 계기로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인 박광태 시장은 8일 간부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정에 대한 발목잡기가 있지만 개의치 않고 내년 2월까지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강운태 의원은 예산국회가 끝나면 내년 1월말이나 2월초께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광주시장 선거에 뛰어 들었던 조영택 의원에 예산국회에 전념한 뒤 지역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참여정부 출신과 민주당 인사들을 통합하

는 일에 당분간 매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노당 광주시당은 내년 1월11일부터 15일까지 당원 직접 투표로 내년 광주시장 후보를 선출기로 했다. 오병윤 중앙당 사무총장과 장원섭 전 시장 위원장의 양자대결이 예상된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8일 윤남실 시장 위원장을 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국민참여당은 오는 19일 시장 창당대회를 통해 시장 위원장을 선출하고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남지사 선거전은 광주시장 선거와는 달리 아직까지는 탐색전에 그치고 있다.

3선 도전이 예상되는 박준영 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선 가운데 주승용 의원이 점차 지지를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이석형 함평군수도 후보를 점차 넓히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평양공황에 도착, 영접나온 북한 관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6자복귀 vs 평화협정" 점점찾기

보즈워스 평양 도착...북·미 공식대화 시작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8일 방북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대통령 출범 이후 11개월만에 북·미간 공식대화가 시작됐다.

보즈워스 특사는 이날 오후 2시2분 대표단 5명을 이끌고 오산 공군기지에서 특별전용기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했다.

미국의 특사자격 방북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차관대부분 이후 7년만의 일이다.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도 이

날 오후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외정책 특별대표와 일행이 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을 확인했다.

보즈워스 특사는 2박3일간 평양에 머물며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과 회동,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고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즈워스 특사는 특히 이번 대화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별도의 유인책이나 제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7일(미국시간) 북미대화와 관련한 콘퍼런스 콜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화의 목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진정함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보즈워스 대표가 별도의 유인책이나 인센티브를 갖고 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 논의에 앞서 평화협정과 북·미 관계정상화가 최우선 의제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측은 대화의 진전여하에 따라 보즈워스 대표의 평양 체류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측이 절충점을 모색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남약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반토막'

전남도의회 김철주 의원 "당초 78곳중 38곳 철회"

무안군 삼향면 남약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던 공공기관의 숫자가 예초 계획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김철주 의원(민주·무안)은 8일 열린 제245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남약신도시 건설 당시 전남도청 관계기관단체 78곳이 도청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40곳으로 줄어들었다"

면서 남약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예초 전남도청을 따라 남약신도시로 이전할 전남도 유관기관단체기관은 168개소 중 78곳이었다. 이 가운데 28곳이 건물을 신축 이전할 계획이었으며, 52개소가 건물 임대 등을 통해 이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전을 계획한 기관은 40

개소에 불과하며, 이 중 아직까지 이전계획이 미정인 기관이 9개소인데다 2010년 이후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도 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전 계획 기관 78곳 중 나머지 38곳의 관계기관은 이전에 소극적이거나 이전계획을 철회해 남약신도시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의 명품도시로 건설하려고 했던 계획이 이전기관 축소로 흔들리고 있다"면서 "남약신도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일부 기관들이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이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전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남약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은 예초 78개에서 75개로 축소됐지만, 신축이전 25개 기관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임대 이전 기관은 50곳 중 20곳이 이전을 완료했거나 협의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임대 이전 기관 중 30곳이 이전에 소극적이어서 현재 검토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 상주인원은 2~3명 정도의 소규모 기관이 많아 이전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북한에 최근 신종플루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해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건없이 치료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면서 "북한의 여건이 좋지 않아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긴급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

"북에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

李대통령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없이"

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 당국이 공식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들은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 신종플루가 확산되는 추

세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북한의 신종플루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신의주 등 접경지역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북한 관련 소

식자들이 전한 대로 사망자가 발생했는지, 신종플루 때문에 휴교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북인권단체 '좋은 벗들'은 지난 7일 신종플루가 북한에서도 빠르게 퍼지면서 각급 학교들이 예정보다 1개월여 이른 이달 초부터 방학에 들어 갔으며,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박준영 지사 "MB지지 발언은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

○박준영 전남지사가 8일 영산강사업 기공식때 한 'MB지지 발언' 논란에 대해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로 당연한 얘기였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오후 전남도의 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 기공식에서 했던 발언과 관련 "아주 당연한 얘기로 이것을 MB 이전가니, 찬사니 한다면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의 수장으로, 당연한 의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할 얘기였다"며 "이것은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다"며 "리더십을 발휘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가도록 하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유선호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

○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강진·영암)은 최근 강진군지역위원회 당직자 30여명과 함께 강진을 목리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따뜻한 한반도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유 의원 등 강진군 지역위는 목리마을에 사는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 6가구에 연탄 3천장을 전달했다.

유 의원은 "조그만 정성이지만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UPGRADE

최고의 품질로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구 브랜드

100%

단독주택 시월시스빌 신비지 남양빌 온수 비공 70% 절감

단독주택 열기비 50~70% 정부 무상지원 정부보조금 신청가능

087-529-1070 / 039-855-5270